**Kenneth Mathews 박사, 창세기, 세션 16,   
이삭의 가족 투쟁, 창세기 25:19-27:40**© 2024 Kenneth Mathew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이것은 16과, 이삭의 가족의 어려움, 창세기 25:19-27:40입니다.   
  
16과에서는 이삭의 가족의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25장 19절 19절은 새로운 일련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것은 야곱에 관한 것입니다. 25절 19절을 봅시다. 이것이 톨레도 입니다 .

톨레도는 여러 세대에 걸쳐 히브리어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또는 서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모두 11개가 있습니다.

19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인 톨레도 이다. 이삭은 과도기적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합시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삭의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의 쌍둥이 형제 에서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에게 다음 세대인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톨레도 부분, 즉 이 이야기는 37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25, 19절부터 37절까지 1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초기 역사 또는 원시 역사는 초기 인간과 문명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는 창조, 하나님의 선한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의도하신 축복, 출산을 포함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통치와 통치, 책임 있는 감독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슬프게도 우리는 첫 남자와 여자가 에덴동산에서 저지른 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그리고 심지어 홍수를 요구할 만큼 사악해질 정도로 커진 그 죄의 결과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홍수의 생존자들, 즉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19장, 실례합니다, 9장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들었던 것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번영할 것이라고. 이제 이것은 바벨탑과 열국의 창조로 이어졌고, 열방의 흩어짐에 대한 해독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한 나라를 일으키셨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분의 창조 질서 전체에 걸쳐 모든 민족 그룹을 위해.

그런 다음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이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주기는 특히 아이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거주할 땅 또는 영토, 출산, 큰 나라, 그리고 번영을 의미하는 축복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축복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내 사래는 불임으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에 성공하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집안이 형통하여 축복을 누리는 동안 그와 함께 여행했지만 자녀도 없고 약속된 아들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우리는 21장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22장은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중요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12장부터 그는 자신과 맺은 언약의 선포를 받습니다. 15장에는 그 언약을 확인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언약의 표인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2장에서 당신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바치라는 도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테스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대한 시험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성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칼에서 이삭을 구해 내십니다. 전체 시험은 이론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깨닫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놀라운 약속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의 이야기에 이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삭이 자주 던져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그의 후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의 몸종인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집트 사람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특히 사라에게서 나올 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 사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아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시된 방식으로 이삭을 캐스팅하는 것은 가족의 결속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연대성과 연합을 보여줍니다.

글쎄, 나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반영하는 몇 가지 방식을 나열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 모두 아내가 다음 세대를 임신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인데, 사라의 경우에는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레베카인 이삭의 아내의 경우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20년을 기다린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과 신실함에 대한 진정한 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 경쟁적인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베카와 이삭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셋째, 우리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장과 오늘 26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장소인 브엘세바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브엘세바의 위치는 이 두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공유됩니다. 그들은 또한 슬픈 에피소드에 참여하는데, 그것은 20장과 26장에 나오는 왕들의 속임수입니다. 아내와 자매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모두 야외 활동을 하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스마엘, 그는 가나안에서 볼 수 있는 주요 도시 밖에서 실제로 자신의 위치로 알려진 야외 활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가이자 사냥꾼으로 묘사되는 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과 대조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지리적, 지형적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삭의 가족의 어려움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주인공은 실제로 이삭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삭은 초기 이야기에 매우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여겨지고, 야곱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그의 주요 역할이자 과도기적 역할입니다.

내가 이 가족 투쟁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의 가족이 경쟁과 편애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속임수와 이기심의 죄로 인한 파괴적인 일들을 점점 더 많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5장 19절과 27장에서 40절의 대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인 야곱의 삶에서 주로 발견되는 어려움을 요약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실제로 야곱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투쟁을 언급하고 암시하는 선지자.

이것은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입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700년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또한 때때로 8세기, 700년대의 남쪽 왕국 유다를 언급합니다.

더 큰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두 개의 다른 왕국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00년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호세아는 그들의 아버지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본보기로 삼았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은 두 개가 됩니다. 그는 때때로 야곱으로 불리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이스라엘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서 나온 열두 지파는 자연스럽게 야곱을 그들의 열두 지파와 그 나라의 조상으로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아브라함과 야곱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 자신들이 여러 세대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12장 3절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해 말합니다.

야곱은 태 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궁 안에는 투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레베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른으로서, 남자로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우리는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일, 즉 하나님의 방문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와 가족, 쌍둥이 형제, 그리고 하나님과도 씨름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 그가 천사와 씨름했다고 계속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32장의 이 투쟁, 즉 하나님과의 씨름 경기에 대한 해석이 호세아에 의해 주님의 천사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삶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야곱이 울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그는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은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가 될 28장에서는 그가 야곱을 벧엘로 데려가서 주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꿈의 시나리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5장의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5장에서 일어나는 장자권의 탄생과 도둑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삭이 40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리브가는 아람 지역의 하란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종이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 북서쪽 지역은 때때로 단지 아람(Aram) 또는 하란(Haran)으로 불리기도 하며 때로는 파단 나하 라임(Padan Naharaim)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그리고 때때로 여기 이 이야기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파단 아람은 문자 그대로 아람 평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북서쪽, 즉 두 개의 큰 강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 임신을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통해 중보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이제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이 맡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는 심지어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했더니(2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자궁 속의 두 아이가 그녀 안에서 싸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아기를 유산하게 될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 여쭈러 갔다고 합니다. 자, 이곳이 신부님과 상담을 했을 장소인가요? 아니면 남편을 통해서였나요? 아니면 그녀가 주님께 직접 여쭈었나요? 주님은 그녀가 기도한 모든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두 아이의 결과를 결정하는 예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두 나라가 당신의 자궁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각 민족의 근원에 민족을 두는 비 유적 표현이다 . 그러면 각 어린이는 국가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분리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강할 것이고, 큰 사람이 어린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별도로 살게 될 두 종족 그룹입니다.

그러면 한 종족, 특히 어린 아이가 나이 많은 종족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한 힘과 더 강한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 많은 사람이 상속과 축복을 받는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기대되는 반면, 그 상황은 반대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삶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한 예시이자, 감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이러한 반전에 의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관습에 따른 것도 아니며,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며, 결코 품성, 의로운 성품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성격이 없고 정기적으로 성격이 실패하는 탁월한 퍼레이드 예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의 경우 그의 실패는 다소 극적이며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 구절을 인용합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을수록 이러한 인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가 꼭두각시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책임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을 사용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위한 그분의 구원의 마스터 계획을 짜 맞추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젊은이가 나이든 사람을 대체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셋이 가인과 달리 총애를 받고 선출된 혈통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나이 많은 사람을 대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묘사된 두 아이에 관해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과 외모에 대한 연극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자궁에는 쌍둥이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쌍둥이였기 때문에 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지 않고, 약속의 아들을 낳을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것은 붉은 색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에돔이라는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 연극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에서이면서 동시에 에돔입니다. 에서는 특히 털이 많은 몸, 즉 털이 많은 옷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에돔.

그 사람은 털이 많았어요, 에서. 야곱의 경우,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좋은 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1위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1위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는 속임수를 통해 장자권을 받게 되고, 또한 이삭의 축복을 받아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야곱의 소리는 붙잡다라는 뜻의 동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실 27장 36절에서 이러한 속임수가 어느 정도 밝혀진 후에는 에서가 자기 형 야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은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는 나를 속였습니다. 자, 여기서 속이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이지만 속임수와 속임수에 대한 은유적인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이번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는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제 나의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장자권과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권과 축복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자권, 즉 장자는 상속 재산에서 가장 큰 몫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이 장자를 족장의 아버지 중 가장 큰 자를 받는 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장자권에 관한 이 설명에서 야외 활동가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삭은 자신의 호의와 즐거움 때문에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서가 그에게 가져온 맛있는 사냥감, 야생 사냥감이었습니다. 레베카, 놀랍지 않게도 제이콥을 사랑했어요. 결국, 야곱은 장막에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편애는 두 형제가 이미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성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직업으로 인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서가 팔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물물교환, 즉 상품 대 상품, 그의 장자권입니다. 이제 일어난 일은 에서가 들어오자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굶주림이었습니다.

즉, 그는 배고프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하고 있는 야곱 을 만났고 여기에 아이러니한 붉은 죽이 있다고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 여기 있는 죽 때문에 붉어짐과 그 얼굴빛이 붉어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에돔이라고도 불렀느니라” 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머리카락일 수도 있겠네요.

자, 야곱은 형을 이용할 기회를 봅니다. 자, 이것을 당신은 아, 그는 교활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더 좋은 방법은 야곱과 그의 성격에 관한 전체 서술 구조의 맥락에서 그는, 즉 사기꾼, 그는 열성적인 사람이었고 야심이 많았으며 내가 말했듯이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장자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의 결과를 따져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실제로 야곱의 속임수에 이용당하는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거래가 발생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고, 에서는 그를 지탱하는 음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서술자는 마지막 부분인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기록의 관점에서 저자는 여기에 서술자를 통해 에서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장자권의 상황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유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로서 그 장자권을 지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싶습니다.

장자권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몇 구절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가 상속 재산의 두 배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작은 아들, 즉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서는 포로 생활과 회복 후에 회복된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두 배로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두 배의 축복과 두 배의 상속 재산과 두 배의 갚음을 주는 일을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삭과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아주 긴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26장 1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축복의 도둑질에 관한 27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삭과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20장에 나오는데, 또한 블레셋 왕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와 이삭과 아비멜렉의 관계 사이의 시간 경과로 인해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명칭은 아마도 바로와 같은 칭호일 것입니다.

판결제목입니다. 아마 동일 인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내-자매의 속임수와 조약에 대한 두 가지 상충되는 설명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판결 제목에 기초하여 동일성을 갖습니다. 비슷한 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속이는 계략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삭도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이것을 배웠을 것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도 사용했습니다.

26장에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애굽으로 갔지만 이삭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축복에 대한 반복이자 확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의 일치와 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성읍 중 하나인 그랄에 머물렀더라. 우리는 나중에 오경을 통해 역사서를 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에게해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5개의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가자(Gaza)입니다. 그랄은 또한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 하나인 펜다볼리의 인상적인 일원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5개 도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전 기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블레셋 민족의 초기 이주이며 아마도 우리가 군주제 시대에 더 많이 배우는 블레셋 민족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계 후손과는 대조적으로 상대적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동일하지만 동일한 종족 그룹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그랄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아내 레베카에 대해 물었고 물론 그는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여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서 벗어나 아비멜렉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꾼 반면, 여기서 그는 아비멜렉이 20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꿈을 꿨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창에서 내려다보며 8절에서 이삭이 그의 아내를 애무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 레베카. 즉, 이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리브가에 대한 그의 입장에서 성적인, 명백한 성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다가 심문하고 심히 근심하여 궁정에 있는 남자 중 하나가 그 여자와 동침할까 두려웠더라.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발견한 것처럼, 이것은 약속된 아들 상속 개념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누구든지 사라와 관계를 맺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이제 이삭은 눈부시게 번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어 그가 매년 수확한 것보다 백 배나 더 많이 거두었으니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의 종들과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더니 마침내 그가 거주할 곳을 찾아 우물을 파고 번성하게 되었다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새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방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르호봇은 방, 공간을 의미하므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고 우리는 번성할 것이며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이삭의 예배 행위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아비멜렉은 조약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의 약속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비멜렉과 그의 목자들이 이삭을 버렸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므로 우리가 조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하였느니라. 29절에서 그들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겠노라 네가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네게 후대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말하노라. 그래서 그들은 우물을 찾아 파고, 그 우물은 일곱 또는 맹세를 뜻하는 셰바(Sheva)로 식별됩니다.

여기서는 맹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의 의식 조약의 일부였던 20장의 일곱 암양 새끼를 기억한다면 메아리이며, 각 장소에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는 실제로 두 가지 생각, 즉 일곱 가지 또는 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4절이 중요한 이유는 에서가 40세가 되었을 때 헷 족속 아내들과 결혼했고, 헷 족속 아내들이 헷 족속의 신들을 가족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하란의 본거지로 돌아가서 참된 야훼 숭배자를 찾아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중요한 언약적 연결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가족 그룹 내에서,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에서가 실천했던 일부다처제와 그 이전의 이스마엘, 그리고 물론 다신교의 위협과는 반대로 야훼에 대한 충실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로 인도하며, 그것이 축복이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족장의 축복을 훔치게 됩니다. 27장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15번 반복되고, 저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것은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축복-저주 모티브는 창세기의 이전 장에서 회상됩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삭이 에서가 그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과 꽤 잘 준비된 야생 사냥감을 즐겼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에서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내가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축복을 물려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측면인 축복을 축하하는 일의 일환으로 그것이 에서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리브가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싶어한다.

마치 야곱은 그녀의 아들이고 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에게 다가와 이제 에서보다 먼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7장 1절에서 우리는 이삭이 늙고 눈이 약해져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이런 속임수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속임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곱은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나를 저주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3절에서는 “내 아들아, 저주는 나에게 미치리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야곱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 없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저주가 내려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즉, 그녀는 무리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녀는 양 떼에서 동물의 털을 취하여 야곱의 손과 팔에 이 털을 입히고 염소 가죽과 목이 털이 많은 몸처럼 보이도록 옷을 입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련된 속임수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만에 대한 책임, 즉 족장들의 삶에서 일어난 슬픈 일화, 이러한 종류의 세대 간 또는 다세대적 기만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 가족, 이런 가족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야곱의 영적 여정의 시작일 뿐이며 그의 경험을 통해 변화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땅을 여행하는 동안 특정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성장하고 더 큰 믿음과 의로움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네 당사자 모두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는 편애를 한다. 이삭은 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여러 번 축복할 수 있는 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두 사람 모두를 불러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아이작을 속이고 그것이 그녀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리베카가 기억하는 한 , 그녀는 태 속에서 이 신탁을 받았지만, 동생이 형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는 인간의 혁신, 즉 남편의 조종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야곱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19절에 보면 나는 네 장자 에서라 하십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 어떻게 이 음식을 구하고 그렇게 빨리 준비하셨나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20절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그의 세 번째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확실히 유죄이고 공모자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피해자인가요? 글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헷 족속 여인들과의 결혼이 리브가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고, 자신의 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자 하는 리브가의 열망을 더욱 부채질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장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살기가 싫으니라. 아니, 그녀는 이 히타이트 여인들 때문에 곧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이 땅 여자들 가운데서 이런 헷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한다면 내 생명은 살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글쎄요, 아마도 과장이고 과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들의 행동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의 깊이를 보여주며, 축복을 훔치는 일이 일어나는 데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그의 번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밭의 냄새로다. 물론 그는 에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으로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것은 토지와 생산성의 번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별로 보면 29절에 보면 내 나라가 주를 섬기며 민족들이 주께 절합니다.

주의 형제들 위에 주가 되시고 주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주께 절하게 하소서. 당신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당신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이 축복이 에서에게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집안 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 그에게는 12명의 아들과 딸이 있으며 크게 번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그의 형 에서는 국가적 영향력 측면에서 형 야곱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한 축복이 없습니까? 뭔가 남은 게 없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에서에게 준 축복을 읽을 때, 그것은 반대 축복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38절). 아버지, 아버지께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축복해주세요, 아버지.

그러자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 네 집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다.” 보세요, 그것은 대조입니다.

당신은 칼로 살 것입니다. 너는 칼로 섬길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이삭의 가족의 투쟁, 창세기 25:19-27:40입니다.